

‘20살 김주형’ PGA 투어 첫 2000년대생 챔피언



김주형(20)이 7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세지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손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윈덤 챔피언십 20언더파 우승 한국인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도 획득

김주형(2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인 역대 9번째 PGA 투어 챔피언이 된 김주형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 최초로 PGA 투어에서 우승했다. 또 한국인 역대 최연소(20세 1개월 18일) PGA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다.

앞서 김시우(27)가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21세 1개월 25일의 나이로 우승했던 게 기존 한국인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다.

김주형은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31야드)에서 열린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8개, 보기 1개로 9언더파 61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18번 홀(파4)에서 약 3m의 파 퍼트를 넣으며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자축했다. 우승 상금은 131만4000달러(약 17억622만원)다.

공동 3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주형은 장타력과 정확한 퍼트를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버디를 몰아치며 선두로 도약했다.

2번 홀(파4)에서 약 6m 퍼트 성공으로 첫 버디를 기록한 김주형은 3번 홀(파3)과 4번 홀(파4)에서도 연속 버디를 낚아내며 공동 선두에 올랐다.

5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김주형은 약 2.5m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키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후 6번 홀(4)과 8번 홀(파4), 9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기록하며 전반에만 8타를 줄였다.

후반 10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기록한 김주형은 15번 홀(파5)과 16번 홀(파3)에서 다시 연속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아직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신분인 김주형

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곧바로 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은 것은 물론 이번 시즌 플레이어프 대회에 출전 자격도 획득했다.

2020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혜성같이 등장해 '10대 돌풍'을 일으킨 김주형은 그해 세계랭킹 92위 자격으로 출전한 PGA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20-2021시즌 5차례, 2021-2022시즌 9차례 출전한 끝에 통산 15번째 대회에서 PGA 투어 첫 우승 감격을 누렸다.

김주형은 "아직은 실감 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생기는 것 같다"며 "퍼트가 잘 들어가면서 마지막 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우승이 가능했던 것 같다. 이른 아침부터 응원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임성재(24)는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4개로 2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5언더파 265타로 교포 선수인 존 허(미국)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와 함께 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선수 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인지, AIG 여자오픈 4차 연장서 패배 ... 커리어 그랜드 슬램 '불발'

현지시간으로 밤 9시가 넘어까지 진행된 '연장 대혈투'에서 아쉽게 준우승한 전인지(28)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연장 징크스'에 또 발목이 잡혔지만 2022년 확실한 '부활 샷'을 날리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다.

전인지는 8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의 뮤어필드(파71)에서 열린 AIG 여자오픈(총상금 730만 달러) 최종일에서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로 애슐리 부하이(남아공)와 연장전에 들어간 전인지는 4차 연장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서 전인지는 LPGA 투어에서 치른 역대 연장 승부에서 '4전 전패'를 기록했다.

전인지는 '메이저 퀸'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큰 대회에 강한 선수다.

LPGA 투어 통산 4승 가운데 3승이 메이저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메이저 3승, 일본 메이저 2승을 거둔 정도의 '강심장'이지만 유독 연장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번 연장에서도 1~3차 연장 내내 불리한 흐름 속에 힘겹게 무승부를 거두고 승부를 다음 차수로 넘겼지만 현지시간 밤 9시를 넘겨 일몰을 눈앞에 둔 4차 연장에서는 티샷이 벅커로 들어간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전인지가 우승했다면 5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4개 대회 타이틀을 수집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전인지는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올해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 남은 메이저 대회는 세브론 챔피언십과 AIG 여자오픈이다.

여자 골프에서는 5대 메이저 가운데 4개 대회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 된다.

비록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전인지는 올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번 준우승 이후에도 전인지는 "아쉬움은 여기서 털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겠다"고 자신감 넘치는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전인지

광주FC, 아산에 2-0 승 ... 승점 60고지 선착

광주FC가 승점 60고지에 선착했다.

광주가 지난 7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22 31라운드 충남 아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3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18승 7무 3패로 승점 61점을 기록했다.

K리그2 11개 팀 중 가장 먼저 '승점 60' 고지에 오른 광주는 2위 대전하나시티즌(13승 8무 5패·승점 47)과의 승점 차를 14까지 벌렸다.

경기 시작과 함께 골키퍼 김경민의 좋은 수비가 나왔다.

충남아산 최병영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광주 골대도 향했지만, 김경민이 뛰어올라 공을 쳐 냈다.

전반 29분에는 최병영이 하프라인부터 공을 몰고 올라온 뒤 왼쪽에서 침투하던 강민규에게 패스

를 해줬다. 강민규가 왼발로 낮게 때린 공이 살짝 광주 골대를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다.

전반 충남아산의 공세를 막 앓는 광주는 전반 종료 직전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추가 시간에 이오뜸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문전에 있던 산드로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산드로 왼발에 맞은 공은 이내 골망을 흔들었다. 기다렸던 산드로의 K리그 데뷔골이 기록됐다.

후반에도 충남아산이 먼저 공세를 시작했다.

후반 3분 박세적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광주를 깜짝 놀라게 했다. 후반 9분에는 유강현의 슈팅을 김경민이 편정으로 막았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김경민이 좋은 수비로 충남아산의 흐름을 꺾었다.

후반 23분 산드로가 다시 움직였다.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수비수들과의 몸싸움 끝에 공을 사수한 산드로가 오른발로 공을 때렸다. 아쉽게 공은 골대 맞고 나왔다.

광주는 후반 27분 상대의 퇴장 호재를 맞았다. 광주 박한빈이 볼 경합 과정에서 충남아산 유강현을 밀었고, 이를 본 상대 수비수 박성우가 박한빈에게 돌진해 몸싸움을 했다. 앞서 한 차례 경고 카드를 받았던 박성우는 다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 당했다.

수적 우위 속 경기를 풀어간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승리를 확정하는 썬기포를 기록했다.

센터서클에서 헤이스가 머리로 패스를 했고, 공을 잡은 마이키가 그대로 공을 몰고 페널티지역까지 질주한 뒤 왼발로 충남아산의 골대를 갈랐다.

팀의 3연승에 마침표를 찍는 마이키의 시즌 3호 골. 헤이스는 4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T 타이거즈 전망대

위기의 '김종국'이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한 주 대구 원정에 이어 주말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통해 승수 더하기에 나선다.

주말부터 2연전이 시작되면서 '야구 없는 화요일'을 보낸 뒤 삼성라이온즈와 3연전을 갖고, 안방에 돌아와 롯데를 상대한다.

악몽의 한 주였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 주말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를 치른 KIA는 2승 4패의 전적에 그쳤다.

올 시즌 9전 전승을 기록했던 한화를 상대로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 등 1승 2패, 올 시즌 6승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두산에도 잇달아 역전패를 당하며 1승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연달아 놓치면서 그라운드 안팎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KIA는 7일 최형우의 끝내기 안타로 5-4 승리는

KIA, 대구 원정·롯데와 홈경기 '승수 더하기'

거뒀지만 덕아웃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날 KIA는 4-0으로 앞선 채 9회를 맞았다. 선놀린이 8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 봉쇄했고, 객번에 막혀있던 타선도 어렵게 선취점을 만든 뒤 8회 3점을 더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박준표가 1사에서 볼넷을 내주는 등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하고 실점을 남기고 1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이어 한승혁이 나왔지만 밀어내기 볼넷으로 4-2, 1루수로 들어간 김규성의 아쉬운 수비까지 나오면서 강승호의 유격수 땅볼 때 2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됐다.

놀린의 승리로 기분 좋게 끝나야 할 경기가 결국 연장으로 접어들었고, 10회말 2사 2루에서 최형우가 중견수 키 넘는 안타를 만들면서 4연패 위기의 팀을 구했다.

전날 경기에서도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

회 역전패를 당했던 만큼 승리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도 편지 않았다.

KIA는 앞선 6일에는 4-1에서 8회를 맞았다. 윤중현이 깔끔하게 2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예상과 달리 마무리 정해영이 8회 조기 투입됐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안재석의 솔로포, 정수빈의 투런포로 8회 4-4 동점. 9회 허경민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는 등 정해영은 1이닝 6실점이라는 최악의 기록으로 4-7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장현식과 전상현의 동반 부상 속 마운드에서는 잇박자 결과가 나고 있다. 타선에서는 잔루만 쌓이고 있어 벤치의 승부수와 전력 배치가 아쉽다.

주중에는 한화전 아쉬운 심판 판정으로 선수단이 동요하기도 했지만 벤치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KIA는 올 시즌 FA 최대어 나성범을 영입하고,

'에이스' 양현종까지 품에 안으면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꼽혔다. '신구 조화'도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최형우와 나지완이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베테랑에 김도영과 김석환이라는 미래 자원이 어우러진 시즌이 기대됐다.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초반 부진을 딛고 특급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을 하는 등 강력한 타선이 완성됐지만, 현실은 4위와 4경기 차 5위다.

KIA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마운드 부상이라는 약점에 막혀 번번이 승리를 놓치고 있다.

무거운 분위기가 속맞는 대구 원정, 그라운드 벤치에서 시선이 쏠린다.

삼성은 최근 성적 부진으로 허삼영 감독이 물러나면서 박진만 감독대행으로 새로 팀을 꾸려가고 있다. 사령탑 교체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삼성과의 승부,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4승 5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결과는 물론 내용까지 중요한 3연전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창진 KBO리그 7월 MVP

KIA 타이거즈의 이창진이 KBO리그 7월 월간 MVP가 됐다. 이창진은 8일 발표된 MVP 투표 결과 과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1표(34.4%), 팬 투표 38만8327표 중 16만5021표(42.5%)를 받아 총점 38.44점으로 KBO리그 데뷔 이후 첫 월간 MVP의 영광을 안았다.

KIA에서는 지난 5월 소크라테스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이창진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0.492의 출루율을 기록했고, 30개 안타(2위)로 0.476의 타율을 찍으면서 타격 1위에도 올랐다. 또 7월 한 달간 16경기 에 나와 11차례 멀티히트도 만들었다. 특히 23일부터 31일까지 8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장식하면서 KIA의 월간 타율 1위(0.298)에 기여했다.

한편 월간 MVP로 선정된 이창진은 상금 200만 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를 부상으로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